

강이야기

3

River & Culture



송정섭 |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
(songjs105@korea.kr)

주요 하천 생태복원과 자생식물

4대강 대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피해처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. 특히 강변을 중심으로 한 수중, 수변 및 둔치에 대한 식생의 복원은 경관 개선은 물론 수질오염 경감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며, 함께 이어질 토착 지류하천들과의 생태적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원래 그 지역에 나는 자생식물들을 식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.

이미 충분히 거론되었듯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온 가시박, 서양등골나물, 환삼덩굴 등 외래식물들이 과도하게 번

성하여 우리 고유의 안정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음을 상기해볼 때 4대강의 경우처럼 인위적으로 자생지를 복원해야 하는 경우 기본 식재소재는 당연히 이 땅에 나던 자생식물이 이용해야 할 것이다. 자생식물은 우리 고유의 환경에서 수천년 동안 적응 발달해 왔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으며 생태계 복원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다행히 자생식물을 재배하는 전문 농업인(한국자생식물생산자협의회, 02-574-2994, www.koris.com)들이 있어 시공사에서 필요물량을 사전에 기간을 주고 제시한다면 공급은



〈그림 1〉 노랑꽃창포 하천변 식재후 잘 정착되어 있는 모습

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.

자생식물을 식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의 환경특성에 맞는 식물의 선정이다. 예컨대, 강변에 수생식물을 심더라도 물속에 심어야 할 초종과 수벽에 붙여 심어야 할 초종이 서로 다르며 햇볕, 습기, 염성, 추위나 더위 견딜성 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식재지 환경에 적합한 초종을 골라 심어야 한다. 이런 환경적응성에 키나 잎 모양 등 형태적 특성까지 감안하여 식재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.

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식재후의 관리다. 자생식물은 대부분 생육속도가 느리며 서서히 정착하기 때문에 식재 후 조금만 방치하면 바로 주변 잡초들에 의해 피압당하고 만다. 따라서 식재후에는 지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 물관리를 해 주고, 주변 잡초를 잘 제거하여 자생식물이 빨리 새뿌리를 내리고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.

4대강 생태복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자생식물 식재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한 바 있다(2009.12. 구입처 031-299-2380, <http://pod.rda.go.kr>). 이 책자에는 우리나라 자생식물과 경관작물 등 4대강 유역의 수중, 습지, 수변 및 둔치나 생태로, 자전거길 등에 심을 수 있는 130개 식물 종 및 작목에 대하여 생리생태·환경적인 특성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록되어 있어 자생식물 시공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4대강 주변에 자생식물을 많이 심게 되면 고유의 하천생태계 회복은 물론 경관성도 좋아져 4계절 우리 꽃을 즐길 수 있게 되며, 강과 연결된 지류나 소하천 공간들을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시민들의 휴식처로는 물론 교육장소로도 손색없을 것이다. ●

